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28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인도

인도-EU FTA 체결 영향 분석

- 인도와 유럽연합(EU)의 20년 만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타결
- 이번 협상 체결은 모디 정부 하에서 보호 중심 산업정책의 한계 인식과 산업 체력 강화에 따라 적극적 시장 개방을 감내할 정책적 자신감이 확보된 결과로 해석
- FTA 체결에 따른 인도 노동집약 산업의 대EU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 제조업·고용 기반 확충을 통한 인도 경제의 중장기 펀더멘털 강화 전망
-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인도 및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전략 유지

인도-EU FTA 타결

인도와 유럽연합(EU)은 1월 27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타결하였다. 상품 부문에서는 인도 수출의 대부분에 대해 EU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EU산 산업재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도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이다.

다만 농업, 낙농, 일부 민감 품목은 상호 보호 차원에서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IT 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양측이 일정 범위의 시장 접근을 조약 수준에서 명문화하였다.

인도는 FY25 기준 유럽연합(EU)으로 759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인도 전체 상품 수출의 17%를 차지했다. 반대로 인도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607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인도 전체 상품 수입의 8~10% 수준이었다.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83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인도의 전체 서비스 수출의 약 19~20%를 차지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속가능성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으로, 인도와 유럽연합(EU)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인도–EU FTA 주요 체결 내용 요약

구분	세부 항목	체결 내용 요약	인도에 미치는 영향	EU에 미치는 영향
상품 교역(전반)	EU의 대인도 수입 관세	교역액 기준 인도 상품 수출의 99% 이상에 대해 EU 관세 단계적 철폐	대EU 수출 경쟁력 구조적 강화	인도산 제품 수입 확대
노동집약 산업	섬유·의류·가죽·신발·보석·수공예	대부분 품목 관세 철폐 또는 대폭 인하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	소비자 가격 인하
자동차(완성차)	인도의 EU산 차량 관세	최대 110%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쿼터 및 이행기간 설정	내수 OEM 단기 보호 유지	프리미엄 차량 시장 접근성 개선
자동차 부품	부품 관세	5~10년 내 단계적 관세 철폐	현지 생산·조립 유인 강화	현지 생산 비용 절감
항공·산업재	항공기·기계류·전기장비	인도 기본관세(BCD) 단계적 인하	항공·산업재 원가 절감	대인도 수출 확대
주류·식품	와인·올리브유·가공식품	와인 관세 150%→75%→최종 20%, 올리브유 45%→0%	경쟁 심화(제한적)	식품·주류 수출 확대
농업(민감)	낙농·곡물·육류	상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농업 보호 유지	EU 민감 농업 보호
서비스 교역	EU 서비스 시장 접근	IT/ITeS·전문서비스·교육 등 144개 하위 부문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접근성 명문화	사업 안정성·계약 가시성 개선	EU 소비자 선택 확대
서비스 교역	인도 서비스 개방	EU 대상 102개 서비스 하위 부문 접근 허용	외국계 서비스 경쟁 일부 확대	EU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
인력 이동	전문인력·기업 내 전보	단기 파견·기업 내 이동 조건을 FTA에 명시	인력 파견 불확실성 완화	EU 기업의 인재 활용 용이
투자	직접투자 환경	투자 보호 및 예측 가능성 강화	유럽 자본 유입 기대	인도 투자 안정성 제고
비관세 장벽	CBAM·환경 규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존 정책 유지	CBAM 부담 지속	환경 정책 자율성 유지
전략적 의미	지정학·통상 전략	중국 의존 축소 및 미국 보호무역 대응 차원의 전략적 FTA	교역 다변화 및 성장 기반 확대	아시아 핵심 성장 파트너 확보

자료: EU,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년간 이어졌던 협상이 성사된 배경 분석

인도–EU FTA 논의는 2007년 공식 개시되었으나, 자동차·주류 관세, 농업 보호, 서비스 개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후 약 10년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2024~2025년 사이 핵심 쟁점에 대한 큰 틀이 정리되면서 2026년 초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FTA가 성사된 배경에는 인도와 유럽연합(EU) 양측의 펀더멘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보호 중심의 산업 정책만으로는 제조업 고도화와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비중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디 정부 3기 출범 이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통해 산업 체력이 강화되면서 "개방을 감내할 수 있는 정책적 자신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

FTA 체결 영향 분석

1) 인도 경제 전반: 장기적 펀더멘털 강화

인도 경제 차원에서 본 FTA 체결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대EU 수출 경쟁력 강화이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보석·주얼리, 일부 수산물 등은 유럽연합(EU) 관세 철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자동차 업종: 단기 중립, 장기 구조 변화

자동차 업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도 내수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산 완성차 관세 인하는 쿼터와 단계적 인하 조건이 붙어 있으며, 저가 대중차 시장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완성차 브랜드의 인도 내 생산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유럽 완성차 브랜드가 인도에서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부품 수입 단계에서 관세 부담이 존재했으나,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인도에 생산기지를 두고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구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단순 판매 시장을 넘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표 2. 인도-EU FTA 체결: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개방과 구조 변화

구분	세부 항목	체결 내용(상세)	인도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에 미치는 영향
완성차	인도의 EU산 차량 관세	현재 최대 110%에 달하는 완성차 수입 관세를 장기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 초기에는 고가·대배기량 중심의 제한적 쿼터를 설정하고, 이후 배출가스 기준·가격대·엔진 유형별로 점진적 개방 구조 채택. EV 및 고급 내연기관 차량이 우선 적용 대상	단기적으로 타타 모터스(Tata Motors)·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등 내수 OEM 보호 유지. 중장기적으로 프리미엄·EV 부문에서 기술 경쟁 압력 증가 및 제품 고급화 유도. 현지 생산 조건과 연계 시 고부가가치 투자 유인 가능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BMW·아우디(Audi)·폭스바겐(Volkswagen)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 접근성 개선. 수입 물량은 제한적이나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및 중장기 현지 생산·CKD 전략의 교두보 확보
자동차 부품	부품 관세	EU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5~10년에 걸친 단계적 관세 철폐. 핵심 파워트레인·전자부품·안전부품은 장기 이행기간 부여, 범용 부품은 조기 철폐 가능. 원산지 규정(RoO)을 통해 단순 환적 방지	부품 조달 비용 하락으로 현지 OEM 및 Tier-1 업체의 수익성 개선. EU 기술 기반 부품 도입 확대를 통해 차량 품질·안전 기준 상향. 인도 내 조립·수출 허브 전략 강화 가능	보쉬(Bosch)·ZF(ZF)·콘티넨탈(Continental) 등 EU 부품사의 인도 생산 비용 절감 및 현지화 확대. 인도를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수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 확대

자료: EU,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인도-EU FTA 자동차 관세·쿼터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항목	확정 내용	인도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에 미치는 영향
완성차 관세(전반)	관세 인하 목표	EU산 완성차에 부과되던 최대 110% 관세를 최종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고율 관세 체계 유지 속 관리된 개방, 내수 OEM 보호와 개방의 균형	대인도 자동차 시장 접근성 구조적 개선
완성차 관세(초기)	즉시 인하 수준	수입 가격 €15,000 초과 차량에 대해 협정 발효 시 관세를 약 40% 수준으로 즉시 인하	프리미엄·고가 차량 중심 제한적 개방	프리미엄 브랜드 가격 경쟁력 즉각 개선
쿼터(TRQ)	적용 물량	연간 250,000대 한도 내에서 우대 관세 적용	수입 물량 통제를 통한 시장 충격 완화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전기차(BEV)	보호 조치	협정 발효 후 첫 5년간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 이후 단계적 인하 적용	전기차·배터리 현지 제조 생태계 보호	단기 EV 수출 제한, 중장기 진입 가시성 확보
자동차 부품	부품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를 5~10년 내 완전 철폐(0%)	부품 조달 비용 절감, 현지 조립·수출 허브 전략 강화	인도 내 전기차 조립용 부품세트(CKD)·현지 생산 경쟁력 대폭 강화

자료: EU,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IT 서비스 업종: 소폭 긍정적, 안정성 개선

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IT 기업들은 FTA 체결 이전에도 이미 유럽연합(EU) 시장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관세 장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FTA는 인력 파견, 기업 내 전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조약 수준에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기 계약 확대와 고부가 서비스 비중 상승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익률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4. 인도-EU FTA 체결 전후 IT 서비스 업종 영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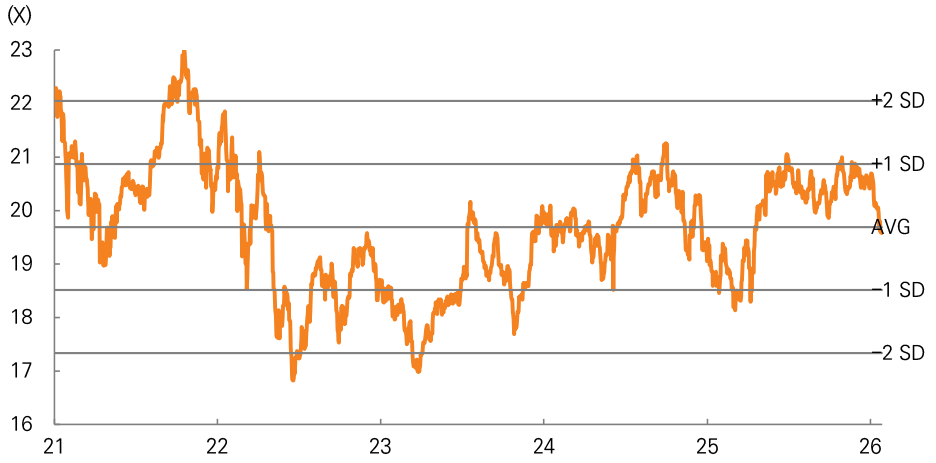
구분	FTA 체결 이전	FTA 체결 이후	전/후 구체적 사례 예시	의미 및 시사점
EU 시장 접근성	인도 IT 기업들은 이미 EU 내 다수 국가에서 IT·ITeS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 시장 지위 확보	기존 접근성 유지,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는 제한적	[전] 독일·프랑스 프로젝트 수주는 가능했으나 국가별 계약 구조 상이 [후] 동일한 EU 프레임 내 계약 구조 정형화	외형 성장보다는 사업 안정성 강화
관세·가격 영향	서비스 교역 특성상 관세 부과 대상 아님	변화 없음	[전/후 동일]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계약에 관세 영향 없음	FTA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
인력 파견 제도	국가별 비자·파견 규정 상이, 행정 해석 불확실성 존재	전문인력 파견 및 기업 내 전보(Intra-corporate transfer) 조건을 조약 수준에서 명문화	[전] 독일·네덜란드 파견 시 프로젝트마다 별도 행정 협의 필요 [후] FTA 기준에 따른 ICT 파견 규칙 적용, 승인 예측 가능성 제고	인력 운용 리스크 완화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범위가 계약·국가별로 상이하게 해석	IT·ITeS·전문서비스 범위가 FTA에 명확히 규정	[전] 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이 '부가 서비스'로 제한 해석 [후] 디지털·컨설팅 서비스 포함 범위 명문화	고부가 서비스 확장 용이
계약 구조	단기·프로젝트성 계약 비중 상대적으로 높음	중장기·프레임워크 계약 체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전] 6~12개월 단위 프로젝트 계약 중심 [후] 3~5년 장기 운영·관리 계약 확대 가능	수주 가시성 및 매출 안정성 개선
수익성 구조	인건비 상승과 단가 압박으로 마진 개선 여력 제한	고부가·컨설팅·디지털 전환 서비스 비중 확대	[전] 단순 개발·운영(O&M) 중심 [후] 클라우드 전환, 사이버보안, 데이터·AI 컨설팅 비중 확대	중장기 이익률 개선에 긍정적
산업 전반 영향	EU 사업은 안정적이나 제도·규제 리스크 상존	제도적 불확실성 축소, 사업 구조 안정화	[전] 국가별 규제 변화 시 계약 재협상 필요 [후] 조약 기반 규칙 적용으로 계약 안정성 제고	질적 개선 중심의 긍정적 영향

자료: EU,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비중 확대 전략 유지

인도-EU FTA 체결은 중장기 관점에서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또한, 인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유지한다.

그림 1. Nifty 50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